

# 신년사

친애하는 영진 임,직원 여러분

2019년 己亥年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영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고 일신에 행운과 큰 복이 가득한 만사형통의 해가 되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은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는 작년대비 10.9%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시행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2019년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진 주식회사는 지난 약 20년 동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온 것처럼 이런 어려운 경영환경의 고난을 기필코 극복하고자 “The Future Challenge” - “미래와 도전”을 2019년 경영방침으로 수립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한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포트폴리오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그간 우리 영진주식회사는 지난 수년동안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분야는 철저히 배제하고, 다양한 수익창출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실현함으로써 안정된 수익구조 확보 및 기업의 체질개선으로 불안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대외 경쟁력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본부별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는 여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의식이 중요합니다.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밑바탕으로 한 본부별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직무포상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의 “영진인”은 미래 지향적이고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영진인”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신년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새해에도 국내.외 모든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영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청 훈